

노점 할머니들 푼돈 뜯는 시장상인회 ‘甲질’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시장상인회〉

市 소유 광장주차장 새벽시장 ‘봉이 김선달식’ 자릿세 걷어 화순·나주 등서 온 200~300명에 매일 1000원씩 징수 상인회 “청소·관리비 명목 문제없다”...구청은 수수방관

시장 상인회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쁜 영세 서민들의 푼돈을 청소비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이 공유지인 푸른길 공원조차 자신을 땅인 것처럼 ‘봉이 김선달’ 행세를 하는데도, 구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노인들은 좌판을 벌이지도 못할까 두려워 수십년 넘게 매일 같이 일정 금액을 챙겨주고 있는 형편이다.

18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시장상인회는 수십년째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광장주차장(면적 1만7472.9㎡) 내 새벽시장(운영시간 새벽 5시~오전 9시)에서 좌판을 펼치는 200~300명의 노점상들에게 매일 1000원씩 자릿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지인 푸른길공원 방문자센터(옛 남광주역사·공원부지) 앞길도 자신들의 관할 구

역처럼 행세,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와 노점을 펼치 노인들에게 1000원씩 관리비 명목으로 챙겨가고 있다고 상인들은 푸념하고 있다.

좌판 노점상들은 “해당 상인회가 새벽시장이 열리는 시각, 시장 곳곳을 돌며 자릿세를 직접 챙겨가고 있다”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인데 푸른길 공원도 자기 땅인 듯 돈을 걷어가기나 사실상 자릿세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부 상인들은 화순·보성·나주 등지에서 수확한 농·수산물 팔러 온 탓에 행여나 좌판도 벌이지 못하고 쫓겨날까 부담한 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릿세’를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공을 팔러 왔다는 김모(여·86)씨는 “화순에서 새벽부터 버스 타고 매일 시장에서 팔아 손에 쥐는 돈이 2만 원 정도”라며 “장사를 못하게 하니 자릿세(관리비)를 주긴 하는데, 왜 죄야 하

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상인회 측은 새벽시장이 첫 개장한 지난 42년 전부터 청소·관리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회는 상인회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광주시나 동구 조례 등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비 규정이 전혀 없어 ‘시민 땅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해당 상인회 관계자는 “외부에서 온 노점상 예컨대 임시출입증을 주면서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며 “관리비는 노점상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다. 오히려 매달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18일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내 새벽시장 인근 옛 남광주역 앞길에서 한 시장상인(왼쪽)이 노점상들을 몰아내면서 노점상이 팔려던 물건을 발로 걷어차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8일 남광주시장 내 새벽시장에서 한 노점상이 배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점선부분은 노점상들이 관리비 1000원을 낸 뒤 해당 상인회로부터 건네받은 새벽시장 관리비 영수증. /백희준기자 bhj@

“상인회 횡포...불한당 같은 사람들” 노점상 치떨어

구청 단속반 앞에서 노점 치우라며 물품 걷어차고 욕설까지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예요.” 18일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내 새벽시장에서 만난 노점상들은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시장상인회의 횡포에 대해 치를 떨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대체 새벽시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남광주시장에 점포 등을 가진 상인회는 노점상보다 ‘갑(甲)’의 위치에 있다. 이들 상인회는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노점을

열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 노점상들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비정상적인 관계는 양측간 ‘갑을(甲乙)’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해당 상인회 측이 불법적으로 ‘노점을 철거시키더라도 노점상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죄송하다. 한 번만 봐 달라”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다. 이날 새벽시장과 맞닿은 옛 남광주역사 부지 앞길에 노점이 펼쳐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구

청 공무원들과 직원 3명이 현장을 찾았다. 상인회 측은 자신들이 관리비를 받고 해당 장소에 노점을 열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들롱날 것을 우려했는지 노점상들을 서둘러 다른 곳으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펼쳐놓은 물품을 발로 걷어차고 던지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한 노점상이 “왜 장사를 못 하게 하느냐”라고 따져묻자, 한 상인회 간부는 “이곳은 남광주시장 상인회 것”이라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해당 부지는 엄연히 시 소유 부지다. 한 쪽에선 한 상인회 간부가 한 노점상의 상자·스티로폼을 어물통에 집어던지며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 넣었다.

어물통에 먼지가 가득 들어갔는데도 노점상은 “애들 학비 벌려고 나온 것인데, 봐 달라”고 오히려 머리를 조아렸지만 상인회는 “원산지 표시 안 했다. 이거 어디 산이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노점 철거 등 단속권한이 없는 상인회 측의 횡포가 계속되는데도, 구청 직원들은 그저 바라만 봤다.

한 노점 주인은 “구청 직원도 가만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기아차 또 채용사기

전 노조간부가 10~20명 상대 수억원 가로채고 일주일째 잠적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이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 가량의 돈을 받아 쟁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기아차 노조도 관련자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나서면서 지난 2004년 대규모 채용 비리사태처럼 사태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기아차 생산직 직원 A(34)씨가 직원 채용을 미끼로 1인당 5000만 원씩 채용 희망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자로 지목된 기아차 노조 간부 출신인 A씨는 지난 10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인물을 비롯, A씨를 연결해준 알선자 등 연루된 숫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및 경찰 안팎에서는 관련 피해자들이 10~20명을 웃돌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는 형편이다.

기아차 노조도 일부 혐의 사실을 파악한 뒤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전 긴급성명을 통해 “전 노조 간부의 채용사기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전 노조간부) 부동산 투자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개인채무 해결을 위해 채용을 빚자한 사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주변 지인들에게도 상당한 액수를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이번 채용사기 행각은 전직 간부의 개인적인 일탈로, 광주시민과 함께 일해야 할 자동차 100만대 사업이 이번 일로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개인 비리로 간주하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노조 간부 출신인데 회사 인사팀 직원과도 잘 아는 사이”라는 식의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에도, 생산직임에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젊은층이 많아져서 채용을 미끼로 한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경제계 시각이다. 기아차 생산직 초인 연봉(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포함)은 4500만 원 수준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요리사가 다른 식당서 운동화 훔쳤다 탈미



○~광주의 한 식당 요리사가 근무중인 20대 남성이 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손님의 운동화를 훔쳤다가 경찰에 탈미.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6)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신발장에 보관중인 정모(18)군의 운동화 1점(시간 17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갔다는 것.

○~김씨는 식당을 빠져나가려던 중 신발발신 사실을 깨달은 정군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순간 욕심이 나 신발에 손을 댔는데, CCTV가 설치돼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특수경매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2~3명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3억5000만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우리공인중개사 김종범
친절상담 H. 010-8589-5500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사정상급매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 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5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주인직매 H.010-3180-8900